

보도 일시	2022. 6. 15.(수) 11:00 6. 16.(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6. 15.(수) 09:00
담당 부서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책임자	과 장 박홍식 (044-201-2331) 담당자 사무관 김정수 (044-201-2332)

소(牛) 단기사육 모델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낮추고, 국산 소고기 가격 합리화 등 한우산업 경쟁력 높인다

-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착수 기념식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5일(수)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붙임1 참조) 착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탄소중립 시대, 한우산업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생산자단체, 학계 및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 사육기간 단축 등 사육방식 개선에 대한 사업취지 홍보 및 공감대 확보 등을 위해 준비되었다.

행사는 크게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오전 행사(붙임2 참조)는 10시 30분부터 농협 안성목장에서 농식품부·생산자단체를 비롯하여 농진청·축산학회·소비자단체 관계자들과 사업착수 기념식을 진행하고 이후 시험대상 송아지가 입식된 실증시험장으로 이동하여 시험준비 상황 등을 함께 점검했다.

오후 행사(붙임2 참조)는 14시부터 안성목장 인근 농협 창업농지원센터 대강당에서 탄소중립 전문가, 소 사육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과 학술토론회를 진행하여 사업추진 당위성 등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규명하고 토론하였다.

학술토론회에서는 ①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축산업 여건 변화 및 대응 방안(축산과학원 김중곤 연구사), ②국내 소 사육 실태 및 당면 현안(농식품부),

③유전형질 별 사양성적 결과분석 및 시사점(전북대 이학교 교수), ④소 단기 사육 모델 개발 가능성 및 기대효과(축산과학원 백열창 연구사) 등의 주제가 발표되었고, 이후 여러 전문가와 학계 관계자들과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그간 소 사육방식은 생산측면에서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사육기간 장기화* 및 곡물사료 의존도 심화 등의 고투입·장기사육 구조가 고착화되어 농가·소비자들에게 생산비 증가, 소고기 가격 부담 상승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비육우(고기소) 사육기간 : (‘00) 약 23개월 → (‘10) 약 28개월 → (‘20) 약 30개월

또한 환경측면에서는 장기 사육방식 등으로 인해 분뇨 및 온실가스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하 가중이 심화되고 있는 등 장기적으로 사회적 후생과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소 출하월령이 단축(30개월→24개월)될 경우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5% 감소하고, 사료비는 약 100만 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며, 소 사육비용 절감 등으로 국산 소고기는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현행 사양관리 프로그램, 사료비, 분뇨 및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등을 단순 환산하여 추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한 신규 사양관리 프로그램 등 적용 시 효과 수치는 변동 예상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그간 한우산업은 규모화·생산성·품질 제고 등 양적 성장전략을 토대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곡물가 불안정으로 농가 경영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이 이러한 도전과제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소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생산자, 소비자, 학계 및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개요
- 2.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착수 기념행사 계획

붙임1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생산측면) 현재 한우 사육시 수익극대화, 품질제고 등을 위해 사육기간 장기화 및 곡물사료 의존도 심화 등 고투입·장기사육 생산구조 고착
 - * 한우 사육기간 : ('00) 약 23개월 → ('10) 약 28개월 → ('20) 약 30개월
 - (환경측면)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농업분야의 약 40% 수준을 차지하며, 향후 사육 규모 확대 등으로 증가세 지속 예상
 - *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CO2eq) : ('11) 8.4 → ('17) 8.6 → ('30p) 11.0 → ('50p) 11.6
- ☞ 「사육장기화 → 사료투입량 증가 → 생산비용 상승, 온실가스 및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 → 가격상승 및 환경부하 증가」 ⇒ 장기적으로 사회적 후생 저하

□ 시험목표

- 유전형질에 따른 최적 출하월령 산출 및 사육기간 단축 방법 제시
 - (육질형) 「1**등급 출하가 가능한 개체」로 사육기간 단축 또는 수익성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극대화 추진
 - * 목표 사육기간 : (현행) 약 30개월 → (단축) 26~28개월
 - (육량형) 「1등급 내외로 출하가 예상되는 개체」로 섭취량이 높은 사료를 통한 단기 비육 유도 → 생산비 절감 추진
 - * 목표 사육기간 : (현행) 약 30개월 → (단축) 24~26개월

□ 주요내용

- ① (송아지 입식) 가축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6개월령 송아지 600마리 대상 유전능력 평가 등을 통해 유전능력별(육질형/육량형) 구분 입식
- ② (실증시험) 유전형질별로 각각 24~30개월령 사육기간에 맞춰 송아지를 배치하고 사양시험 프로그램 적용
 - * 유전능력 2종(육질형·육량형) × 사육기간 3종(24·26·28개월) × 영양수준 2종(관행·강화) × 비교구 5종
- ③ (병행과제) 실증시험을 토대로 한우 단기 사양 프로그램 개발 및 단기 출하육 유통·소비 구조 개선방안 등 조사·연구
 - * ① 유전능력 맞춤형 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② 단계별 탄소배출 측정 조사, ③ 송아지 유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고도화, ④ 단계별 품질수준 조사, ⑤ 주요국 소 사육방식 조사, ⑥ 단기비육우 마케팅 전략수립 및 시장성 확대방안

□ 향후계획

- 최종 시험성적 등을 바탕으로 소 단기사육 모델 마련 및 농가 보급(25~)

붙임2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착수 기념행사 계획

< 사업착수 기념행사 >

□ 일시 및 장소

- '22.6.15일(수) 10:30~11:30 / 농협 안성목장 일원

□ 참석대상

- 주요인사(7명) : (농식품부) 차관보, (농협경제지주) 조재철 상무, (축과원) 박범영 원장, (한우협회) 김삼주 회장, (전국한우조합장협의회) 최창열 회장, (축산학회) 이지용 한우연구회 회장*, (소비자단체) 주경순 회장**
 - * 전남대 동물자원학부 교수, ** 소비자교육중앙회

□ 행사일정

시간	내용	비고
10:30~10:40 (10분)	○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10:40~10:45 (5분)	○ 시범사업 경과보고	
10:45~10:50 (5분)	○ 인사말씀 : 차관보 → 농협경제지주	
10:50~11:00 (10분)	○ 축사 : 한우협회 → 한우조합장협의회 → 소비자단체 → 축과원 → 축산학회	
11:00~11:10 (10분)	○ 행사기념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 피켓조립, 버튼터치 등 사업착수 퍼포먼스 진행	
11:10~11:25 (15분)	○ 주요 참석자 실증시험장 현장 점검 * 방역복 착용 → 실증시험장 시험 착수 상황 점검	
11:25~11:30 (5분)	○ 행사 마무리	

《 행사장소 위치 및 이동동선 》



< 학술토론회 >

□ 일시 및 장소

- '22.6.15일(수) 14:00~16:00 / 농협 창업농지원센터 대강당

□ 참석대상

- 발표자(5명) : (발제)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관계자, (기후변화 동향) 축산과학원 김중곤 연구사, (국내 소 사육실태) 농식품부, (단기사육 모델 I) 전북대 이학교 교수, (단기사육 모델 II) 축산과학원 백열창 연구사
- 토론자(8명) : 발표자 5명+탄소중립·농경제 분야 전문가 추가(3명)
* (탄소중립) 서울대 김경훈 교수, (농경제) 경상대 전상곤 교수, KREI 이용건 박사

□ 행사일정

시간	내용	비고
13:30~14:00 (30분)	○ 참석자 등록	
14:00~14:05 (5분)	○ 개회, 국민의례	
14:05~14:15 (10분)	○ (발제)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개요	농협
14:15~14:30 (15분)	○ (발표1)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축산업 여건 변화 및 대응방안	축과원 김중곤 연구사
14:30~14:45 (15분)	○ (발표2) 국내 소 사육방식 실태 및 당면 현안	농식품부
14:45~15:00 (15분)	○ (발표3) 유전형질 별 사양성적 결과분석 및 시사점	전북대 이학교 교수
15:00~15:15 (15분)	○ (발표4) 소 단기사육 모델 개발 가능성 및 기대효과	축과원 백열창 연구사
15:15~15:25 (10분)	○ 휴식	
15:25~16:00 (35분)	○ 종합토론	

《 행사장소 내외부 전경 》

